

절실했던 서포터를 찾은 느낌

-글말교실 글말특강 2회차 [가상 스펙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를 수강하며

2023년 1학기.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4학년이 되었다.

졸업을 곧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신날 때도 있었지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 오래 느끼고 있다. 주변 친구들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이미 많은 길을 구상한 경우가 대부분인 학과에서 나는 취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었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또 생각하게 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또 생각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뭔가 이론 것이 없는 것도 아닌 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짧고 텅텅 빈 이력서로 준비가 가능할까' 고민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프로그램과 상담도 찾아 신청하고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도 찾아 수강하던 중 글말교실 글말특강 2회차 [가상 스펙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를 발견했다.

가상 스펙? 가상 스펙을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쓴다?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작은 것이라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청 후 수강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너무 도움이 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특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가상 스펙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은 말 그대로 가상의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것인데, 단순히 가상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스펙들을 직접 조사해 파악하고 그것을 획득했다는 가정으로 내 희망 스펙을 충분히 들여보며 자기소개서를 써본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활동이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내가 직접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조사하며 정확하고 자세하게 취업 희망 회사와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상의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진짜로 이 스펙을 획득해 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질문의 출제자 의도 분석 자료와 많은 학생들의 오류 사례 자료 등 대학 4학년생의 입장에서 정말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스와 그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취업의 예행연습을 할 수 있었고 엄청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고민과 생각만 많이 하면서 불안함과 막연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상 스펙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탄탄하고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 계획

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 대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런 자신감과 준비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지를 탄탄하게 구축해 기업에게 그리고 인사담당자에게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찾고 신청한 특강이지만 절실하고 간절했던 순간에 나를 위한 서포터를 만난 느낌이었고, 이 기회를 소중하고 알뜰하게 이용하며 내 미래를 만들어보고자 한다.